

## 甲骨文 ‘此’의 의미소 연구

허 성 도\*

<目次>

I. 緒言  
II. 本論

III. 結語

### I. 緒言

의미는 어디에 존재하는가의 문제에는 아직도 결론이 없다. 의미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사전을 찾지만, 사전에서 제시하는 의미 목록이 그 어휘의 모든 의미는 아니다. 하나의 어휘에는 수많은 파생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파생은 계속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이와 같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파생되어 가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미가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모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의미의 근원은 이미지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한 장의 그림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듯 의미의 이미지로부터 수많은 파생의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전이 제시하는 의미는 고정화, 形骸화된 의미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어휘 사용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의 본원을 그리워한다. 한국어의 의미의 본원은 한국인의 내면의식에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어의 의미는 사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자의 의미도 따라서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사전에 의지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한자의 의미의 본원에 다가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의 이미지에 다가설 수 있다고 이 글은 믿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상황이 한자의 의미소 연구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右文說은 한자의 구성요소 중의 일부는 形聲要素일 뿐 아니라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段玉裁도 <說文解字>에서 이러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의미소(Meaning Features)라는 개념으로 의미성분을 파악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의미소에 의하여 파악된 의미는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의미소의 개념이 없이 파악된 의미는 숨쉬지 않는 고정된 의미만을 제시한다. 고정된 의미에서는 파생의미를 생산해갈 수 없다. 이것이 이 글이 의미소를 찾아가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필자는 한자의미론을 연구하면서, 각 한자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의 파생 원리를 밝히는 작업<sup>1)</sup>과 각 한자에 포함된 의미소를 찾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허성도(1996)에서는 ‘貴’, 허성도(1998)에서는 ‘朋, 孚, 噪’, 허성도(199a)에서는 ‘至’, 허성도(1999b)에서는 ‘也’, 허성도(2001)에서는 ‘啜’의 의미소를 찾아왔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상당수의 한자는 그 자신을 구성요소로 취하는 한자에서 하나의 의미소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작업에 이어서 ‘此’의 의미소 기능을 찾아보기로 한다.

## II. 本 論

<說文解字>에서는 ‘此’에 대하여 “止也, 從止匕, 匕相匕次也. 凡此之屬皆從此.”<sup>2)</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說文解字>가 말하는 ‘止’와 ‘匕’의 의미를 보기로 하자. <說文解字>에서는 ‘止’에 대하여 “(‘止’

1) 허성도(1996, 2000)

2) <說文解字> p.69.

는) ‘아래 터’라는 뜻이다. 초목이 뚫고 나올 때의 그 터가 있는 모습을 상형하였다. 그러므로 ‘止’는 ‘발(足)’의 의미로 사용된다(下基也。象草木出有址，故以止爲足。).<sup>3)</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說文解字>에서는 ‘匕’에 대하여 “(‘匕’는) 사람이 서로 함께 나란히 차례 지어 있는 모양이다. 자형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相與比敘也。從反人。).”<sup>4)</sup>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의미를 종합하면 <說文解字>의 ‘此’에 대한 위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此’는 ‘발(足)’이라는 뜻이다.<sup>5)</sup> 자형은 ‘발’과 ‘등을 돌린 사람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을 돌린 사람의 모양’이란 ‘서로 등을 돌리고 순서대로 서있는 모습’을 말한다.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자는 모두 ‘此’部首에 소속시킨다.”

위의 설명을 보면 ‘此’의 의미는 ‘발’ 혹은 ‘멈추다’가 된다. 그렇다면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자는 ‘此’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제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자의 의미를 관찰하기로 하자.<sup>6)</sup>

- 3) <說文解字> p.68. 이 한문은 <說文解字> 원본의 글자 가운데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현대에 사용되는 한자로 바꾼 것이다. <說文解字>의 해석은 엄정삼(2007:54)를 따랐다. ‘아래 터(下基)’를 ‘다리’로 본 것은, ‘아래 터’를 신체에 대비한 결과일 것이다. 필자는 이를 의미의 형상이동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는 허성도(2005:166)을 참고할 것.
- 4) <說文解字> p.388. ‘相與比敘也’에 대하여 段玉裁는 ‘此者，密也。敘者，次第也.’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은 “匕’는 나란히 조밀하게 순서 짓는다는 뜻이다.’라고 해석된다. 엄정삼(2007:382)는 段玉裁의 주석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段玉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위 문장에 나오는 한자의 원의에 따라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필자의 해석이 甲骨文 ‘此’의 원의에 더욱 가깝고, 이러한 해석이 <說文解字>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5) ‘발(足)’로부터 ‘멈추다’라는 의미가 나올 것이다.
- 6) 다음의 한자의 의미는 한국의 자전에 나오는 의미이며, ( ) 안의 설명은 曹先擢·蘇培成의 <漢字形義分析字典>에 나오는 해당 한자의 [解析] 부분을 옮겨 적은 것이다. ( ) 안의 설명이 없는 것은 이 자전에 수록되지 않은 자이다.

- 些 : 적다(從此從二, 其義未詳.)  
 疵 : 사마귀(形聲字, 從疒此聲.)  
 雌 : 산란할 수 있는 새(形聲字, 從隹此聲.)  
 吡 : 헐뜯다(形聲字, 從口此聲.)  
 訾 : 헐뜯다(形聲字, 從言此聲.)  
 眦 : 눈을 흘기다(形聲字, 從目此聲.)  
 觜 : 부리(形聲字, 從角此聲.)  
 嘴 : 부리(本作觜, 從角此聲.)  
 泚 : 땀이 나다(形聲字, 從彳此聲.)  
 跣 : 밎다(形聲字, 從足此聲.)  
 柴 : 쉼(形聲字, 從木此聲.)  
 紫 : 자줏빛(形聲字, 從糸此聲.)  
 崇 : 쉼나무를 때어 제사지내는 일  
 鸩 : 살이 붙은 鳥獸의 남은 뼈  
 髓 : 회다  
 髒 : 헐뜯다  
 髒 : 허물  
 廝 : 쟁깃술  
 玼 : 옥빛이 깨끗하다  
 貲 : 벌 대신 내는 벌금  
 糞 : 물릴 만큼 실컷 먹다  
 髓 : 肉脫이 덜된 뼈  
 髡 : 콧수염  
 髓 : 뼈드렁니, 덧니가 드러나다  
 眦 : 어긋나게 잇닿다  
 髒 : 울타리, 돌담  
 黷 : 갈치

위의 한자의 의미는, ‘발(足)’이나 ‘땀’의 의미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여기에 나오는 한자는 한사연한자부호계에 나오는 한자 가운데 ‘此’를 구성요소로 취하는 모든 한자이다. 한사연한자부호계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의 확장한자로 사용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위의 한자군의 의미와 ‘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甲骨文 ‘此’를 보기로 하자. 다음은 ‘此’의 甲骨文이다.



위의 甲骨文은 ‘止’와 ‘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止’는 馬如森(1993:305)에 의하면 진자는 ‘발가락과 발바닥이 있는 발’을 상형한 것으로서 ‘복사뼈 아래의 발 부분’을 나타낸다.<sup>7)</sup> 徐仲舒(1990:125)의 견해도 이와 동일하다. 그는 “‘止’이 사람의 발의 형태를 간략하게 상형한 것이며, 早期 金文의 형태도 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의미는 ‘사람의 발’이라고 본다. ‘人’에 대하여 徐仲舒(1990:875)는 ‘사람이 옆으로 서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사람이 옆으로 서있으면 몸통과 하나의 팔이 보일 뿐이다.(象人側立之形。人側立則僅見其軀幹及一臂。)’라고 말하고 있으며, 馬如森(1993:486)은 ‘서있는 사람을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상형한 것(象側視立式之人形)’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此’의 甲骨文은 ‘사람의 발과 서 있는 사람의 옆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甲骨文 ‘此’의 의미에 대하여 徐仲舒(1990:145)는 釋字에서 ‘此’의 문자적 의미는 <說文解字>와 같이 ‘머물다’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sup>8)</sup> 또한 釋義에서는 “祭祀의 이름이 아닌가 한다. 陳邦福은 ‘紫’가 생략된 자형이라고 보았다.(疑爲祭名, 陳邦福以爲紫之省。)”라고 말하고 있다. 徐仲舒에 의하면 ‘此’의 자형은 ‘머물다’를 나타내고, 의미는 ‘제사 이름’이 된다. 馬如森(1993:309)의 견해는 이와 달리 “‘此’는 ‘人’과 ‘止’로 구성되어 있으며, ‘止’는 사람의 발이 밟고 있는 장소를 표시한다. ‘此’는 象意字로서 ‘저것’의 상대적 개념을 표시한다. 원의미는 ‘이곳’이 아닌가 한다(從人從止, 止者以示人脚所踏

7) “古趾字, 象脚有指和掌形, 本義是人的脚。”

8) “說文, 此, 止也, 從止, 從匕。甲骨文與<說文>篆文同。”

之處, 象意, 與彼相對。疑本義是此處。)."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를 정리하면 ‘此’에 대한 <說文解字>와 甲骨文의 자형은, ‘발(足)’과 ‘등을 돌린 사람의 모양, 즉 사람의 측면’이 합쳐진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馬如森(1993:309)은 특별히 ‘此’의 원의를 ‘이곳’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說文解字> 詁林的 한 견해와도 같다.<sup>9)</sup> 그러나 ‘이것’이라는 의미도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위의 한자군의 의미의 공통점을 설명해줄 수 없다. 각 한자의 의미는 ‘이것’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此’는 발음을 나타내는 형성요소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丁福保(1998)에서는 위의 한자 27자 가운데 11자를 形聲字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의 漢字群이 ‘此’와 동일한 발음을 나타내는 甲骨文 ‘祠, 束, 次’를 구성요소로 취하지 않고 ‘此’를 구성요소로 취한 필연적 이유를 설명해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의 漢字群은 우연히 구성된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의 漢字들이 ‘此’를 취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제 이러한 필연적 이유를 찾아보기 위하여 ‘此’의 甲骨文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此’는 甲骨文과 <說文解字>의 지적과 같이 ‘足’과 ‘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足’은 ‘발을 디딘 곳’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멈추었던 어떤 장소’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처소를 A, ‘사람’을 B로 부르기로 하자. 甲骨文 ‘此’의 의미는 A와 B의 관계에서 생성될 것이다. 甲骨文 ‘此’의 구성을 보면 B는 A의 右上面, 右側面, 左側面, 直上面에 존재한다. B의 자세는 A를 향하거나 A를 등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 甲骨文 ‘此’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이제 A와 B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찾아보기로 하자. 첫째, A와 B는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로부터 ‘이곳’이라는 개념이

9) <說文解字> 詁林, 第三冊, p.721에는 ‘此者, 彼之對也, 故有相比次之義.’(此는 ‘저것’의 상대개념이다. 그러므로 서로 순서를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있다.

나올 수 있다. 둘째, B는 A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이라면 B는 A 방향으로 마주 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B는 A와 등지고 있는 자형이 있으므로 ‘접근’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셋째, B가 A로부터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온 상황이라면 B는 A를 등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A를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온 후, 멀지 않은 거리에 B가 존재하므로 ‘이곳’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는 곧 ‘이곳’이라는 개념도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온 상황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甲骨文 ‘此’는 사람 B가 처소 A로부터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을 甲骨文 ‘此’의 의미소로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오는’ 상황을 ‘이탈’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를 甲骨文 ‘此’의 의미소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漢字群의 의미가 甲骨文 ‘此’의 의미소 [이탈]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 ) 안에 나오는 의미는 漢語大詞典에서 제시하는 의미이다.<sup>10)</sup>

些[사] : [이탈+두 개]→[두 개가 빠져 나오다→새어나온 것이 적다]→적다<sup>11)</sup>(細小貌.)

疵[자] : [이탈+병]→[무엇이 빠져 나오는 병]→사마귀(母斑, 黑斑.)

雌[자] : [이탈+새]→[무엇을 이탈시키는 새→알을 이탈시키는 새]→암컷 새(禽鳥中能產卵的.)

訾[자] : [이탈+말]→[말이 빠져나오다]→헐뜯다(詆毀, 指責.)<sup>12)</sup>

訾[자] : [이탈+입]→[입에서 빠져나오다]→헐뜯다(通“訾”. 詆毀.)

毗[자] : [이탈+입]→[입에서 빠져나오다]→헐뜯다(同“訾”. 露出牙齒. 申斥, 斥責.)<sup>13)</sup>

10) ( ) 안의 한자 의미가 없는 것은 漢語大詞典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이다.

11) ‘兩’은 현대한어에서도 적은 수를 나타낸다. “你說他兩句.”, “一兩個.”의 ‘兩’이 이를 증명한다.

12) 중국인들은 정식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말은 헐뜯는 말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齒[자] : [이탈+두 개의 입]→[두 사람의 입에서 빠져나오는 것]→번거롭다  
(引申爲苛細.)<sup>14)</sup>
- 齧[재] : [이탈+이]→[이가 빠져나오다]→빠드렁니, 덧니가 드러나다(露出牙.)
- 庇[자] : [이탈+마룻대]→[빠져나온 마룻대]→쟁깃술<sup>15)</sup>(未下端用以接粗的曲木柄.)
- 玼[자] : [이탈+옥]→[옥에서 빠져나오다]→옥빛이 아름답다, 옥의 티(玉的斑點.)
- 眥[자] : [이탈+눈]→[눈에서 빠져나오다]→눈초리, 눈을 흘기다(上下眼臉的接合處. 近鼻處爲內眥, 近鬢處爲外眥, 通稱眼角.)
- 齙[자] : [이탈+고기]→[고기가 빠져나오다]→살이 붙은 鳥獸의 남은 뼈(肉還沒有爛盡的骨殖.)
- 鬣[자] : [이탈+뿔]→[뿔처럼 빠져나오다]→부리, 새의 주둥이(貓頭鷹頭上的毛角.)
- 嘴[취] : [이탈+부리]→[입에서 빠져나온 부리]→부리(本作“鬣”. 鳥喙. 后泛指人和一切動物、器皿的口.)
- 贖[자] : [이탈+재물]→[재물이 빠져나오다]→벌금(罰款, 罰繳財物.)
- 鑿[자] : [이탈+쇠]→[쇠가 빠져나오다]→도끼
- 頰[자] : [이탈+털+얼굴]→[얼굴에서 털이 빠져나오다]→코밑수염(口上須.)
- 鬚[자] : [이탈+털]→[털이 빠져나오다]→콧수염(嘴唇上邊的胡子.)
- 饕[자] : [이탈+음식]→[음식이 빠져나오다]→물릴 만큼 실컷 먹다(謂厭食.)<sup>16)</sup>
- 骹[자] : [이탈+뼈]→[뼈가 새나오다]→肉脫이 덜된 뼈(骹骨.)<sup>17)</sup>
- 眦[차] : [이탈+사람]→[대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어긋나게 잇닿다(小.)<sup>18)</sup>

- 13) ‘질척하다’와 ‘빠드렁니’라는 두 의미가 하나의 어휘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입에서 ‘빠져나오거나 새어나온다’는 동질성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4) 중국인은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의견은 ‘번거롭다, 까다롭다’라고 본 것 같다.
- 15)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끝에 보습을 맞추는 넓적하고 뼈죽한 바닥이 있고, 그 뒤에 네모진 한 마루 구멍이 있다. 이 구멍에 나무를 박아 쟁기를 들거나 뒤로 물릴 때에 이것을 잡아 쳐든다.
- 16) 이는 토할 만큼 실컷 먹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 17) 肉脫이 덜 된 뼈는 살이 붙어 있으므로, 마치 뼈가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일 것이다.
- 18) 漢語大詞典에는 의미가 ‘小’라고 되어 있지만, 원의미는 ‘어긋나게 잇닿다’가 맞을 것이다. 어긋나게 잇닿은 상태에서 빠져나온 부분은 작아 보일 것이기

- 泚[자] : [이탈+물]→[물이 빠져나오다]→땀이 나다(汗出貌.)  
 趾[차] : [이탈+다리]→[다리가 빠져나오다]→밟다, 발 아래가 미끄러지다.  
 (踏, 踩, 滑動, 移動.)<sup>19)</sup>  
 𦉳[채] : [이탈+돌]→[돌이 빠져나오는 울타리]→돌담(防衛用的柵欄.)<sup>20)</sup>  
 𦉳[채] : [이탈+희다]→[흰색이 새나오다]→희다  
 柴[시] : [이탈+나무]→[새어나온 나무]→쉴, 거칠다(小木散材. 亦指作燃料的木柴.)  
 𦉳[재] : [소리+거칠다]→[소리가 거칠다]<sup>21)</sup>→개가 싸우다  
 𦉳[시] : [이탈+제사]→[쉴을 사용하여 제사지내다]<sup>22)</sup>→쉴 때 제사지내다(古指燒柴生煙以祭天.)  
 𦉳[제] : [이탈+물고기]→[빠져나온 모양의 생선]→갈치(魚名. 卽刀魚.)

이상의 의미 목록은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27자 가운데 26자의 의미가 모두 [이탈]이라는 의미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이 해결되지 않는다.

紫[자] : [이탈+실]→자춧빛

### III. 結 語

이 글은 甲骨文 ‘此’가 [+이탈]의 의미소를 가지게 된 상황을 논의하고, 실제로 ‘此’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자의 의미가 의미소 [이탈]에 의하여 설명

때문이다.

- 19) 밟는 행위도 발이 연속적으로 앞으로 빠져나오는 행위이며, 미끄러지는 것도 발이 갑자기 앞으로 빠져 나오는 행위이다. 이는 형상이동에 속하는 의미파생이다.  
 20) ‘𦉳’의 원의미는 ‘돌담’일 것이다. ‘돌담’은 돌이 비죽비죽 솟아나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21) ‘口’가 의미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개 ‘소리’를 나타낸다. 이 경우의 ‘柴’는 ‘거칠다’는 의미소를 갖는다.  
 22) 이 경우에는 ‘此’는 ‘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맞는 것이라면 이 글이 제시한 ‘此’를 구성요소로 취하는 각 한자의 의미가 원의미(Original Meaning)가 되며, 이러한 원의미가 구성하는 이미지가 그 한자의 의미의 본원이 된다. 위의 각 한자의 파생의미는 이 이미지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파생의 생명력은 이어질 것이다.

이 글은 논의 과정에서 ‘紫’가 어떠한 원리로 ‘자줏빛’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는 제현의 도움을 기다린다. 그러나 ‘此’의 의미소 [이탈]이 상당수의 한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규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인문학적 규칙은 모든 현상을 예외 없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 錢仲聯丁福保(1988),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 北京.  
 徐仲舒(1990), 甲骨文字典, 四川辭書出版社, 成都.  
 馬如森(1993), 殷墟甲骨文引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長春.  
 曹先擢·蘇培成(1999), 漢字形義分析字典,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許成道(1996), 漢字意味論序說, 省谷論叢, 제27집 1권, 서울.  
 \_\_\_\_\_(1998), 漢字的意味素研究 -朋, 孚, 噪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제32집, 嶺南中國語文學會.  
 \_\_\_\_\_(1999a), ‘至’의意味素 기능탐구, 중국의 문학과 언어, 二不金學主教授 정년기념논문집, 신아사.  
 \_\_\_\_\_(1999b), ‘也’의意味素研究, 蓮崗中國學論叢, 創刊號, 蓮崗中國學會.  
 \_\_\_\_\_(2000), 漢字的 의미자질을 찾아서,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제10권 제2호.  
 \_\_\_\_\_(2001), ‘啜’의 의미소 연구, 中語中文學 第28輯, 韓國中語文學會.

(2005), 한자의 의미구성 규칙에 관한 연구, 제39회 어학연구회 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中文提要>

有些甲骨文可爲漢字的部件。下面是以甲骨文‘此’爲部件的漢字及其意義:

雌(禽鳥中能產卵的.)	訾(詆毀, 指責.)
眚(通“訾”. 詆毀.)	毗(同“齟”. 露出牙齒. 申斥, 斥責.)
嵒(苛細.)	齟(露出牙.)
庇(耒下端用以接耜的曲木柄.)	玼(玉的斑點.)
齒(肉還沒有爛盡的骨殖.)	觜(貓頭鷹頭上的毛角.)
貲(罰款, 罰繳財物.)	釜(斧.)
頰(口上須.)	髭(嘴唇上邊的胡子.)
饕(謂厭食.)	髑(髑骨.)
比(連接而差, 小.)	泚(汗出貌.)
趾(踏, 踩. 滑動.)	砦(石柵, 防衛用的柵欄.)
皤(白.)	柴(小木散材. 亦指作燃料的木柴.)
噤(犬鬪聲.)	柴(古指燒柴生煙以祭天.)
鯨(魚名. 卽刀魚.)	
眚(上下眼瞼的接合處. 近鼻處爲內眚, 近鬢處爲外眚, 通稱眼角.)	
嘴(本作“觜”. 鳥喙. 后泛指人和一切動物、器皿的口.)	

但是這漢字的意義跟‘此’的意義‘這兒, 這個’無關。甲骨文除了有文字的意義, 還有義素功能。甲骨文‘此’的字形是‘人+止’構成的, ‘止’表示人腳所踏之處。甲骨文‘此’的字形很多樣, 有的‘人’在‘止’的上面, 有的‘人’在‘止’的側面, 有的‘人’在‘止’的右上面, 有的‘人’在‘止’的左面。‘人’的形態, 有正向‘止’的, 也有背向‘止’的。這些形態都表示一個共同的意義, 那就是‘人脫離人腳所踏之處’。因此甲骨文‘此’的義素可以說是[+脫開], 用[+脫開]這義素, 我們很容

易理解由‘此’構成的漢字群的意義。其例子如下；

- 些:[脫開+兩個]→細小貌  
疵:[脫開+病]→母斑, 黑斑.  
雌:[脫開+佳]→禽鳥中能產卵的.  
訾:[脫開+言]→詆毀, 指責.  
訾:[脫開+口]→通“訾”. 詆毀.  
呖:[脫開+口]→同“齶”. 露出牙齒. 申斥, 斥責.  
嵒:[脫開+兩個口]→苛細.  
齶:[脫開+齒]→露出牙.  
庇:[脫開+广]→未下端用以接粗的曲木柄.  
玼:[脫開+玉]→玉的斑點.  
眥:[脫開+目]→上下眼瞼的接合處. 近鼻處為內眥, 近鬢處為外眥, 通稱眼角.  
齧:[脫開+肉]→肉還沒有爛盡的骨殖.  
鬚:[脫開+角]→貓頭鷹頭上的毛角.  
嘴:[脫開+齧]→本作“齧”. 鳥喙. 后泛指人和一切動物、器皿的口.  
貲:[脫開+貝]→罰款, 罰繳財物.  
鑿:[脫開+金]→斧.  
頰:[脫開+彡+頁]→口上須.  
髭:[脫開+髟]→嘴唇上邊的胡子.  
饕:[脫開+食]→謂厭食.  
髓:[脫開+骨]→髓骨.  
眦:[脫開+人]→連接而差, 小.  
泚:[脫開+彡]→汗出貌.  
跣:[脫開+足]→踏, 踩. 滑動.  
砦:[脫開+石]→石柵, 防衛用的柵欄.  
皤:[脫開+白]→白.  
柴:[脫開+木]→小木散材. 亦指作燃料的木柴.  
噤:[聲+柴]→犬鬪聲.  
柴:[脫開+祭]→古指燒柴生煙以祭天.  
鯊:[脫開+魚]→魚名. 即刀魚.

但‘紫’還不能以[脫開]義素解釋。